

주일 예배 11시

2017년 8월 20일 (셋째 주일)

*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리잡음

예배로의 부름

사회: 김성진 집사

*찬송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8장) 다 함께

*기도 주기도문 다 함께

*교독문 50번 다 함께

*찬송 너희 죄 흉악하나(255장) 다 함께

기도 김동진 형제

찬송 십자가 군병 되어서(353장) 다 함께

말씀 고명환 목사

-깨어 있지 않을 때(사무엘하 11장 1-4절)

*찬송 마귀들과 싸울지라(348장) 다 함께

교회소식 담당자

기도 담당자

교회소식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어린이 청소년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읽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읽을 성경:시편 107-113, 창세기 1-25장

- 기도해 주세요-
- 1. 팔루스 교회에 주님의 예비한 영혼들 보내 주소서
- 2.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고 주님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 3.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지켜 주소서
- 4.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순례자의 목상

깨어 있음

창세기 6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께 대하여 깨어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끌려갔습니다. 그 마음은 이제부터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추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 그들이 생각하고 도모하는 것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벌써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 장에서 '생명수'란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빛 되시고, 참으로 흠족한 은혜 되어 주시는 것에 관하여 표현한 말씀은 정말 많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깨어있으므로 가능하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 장은 강조합니다.

깨어있으므로!

여기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단순하게 주어진 현실을 알지 못한 그런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이 진정 내 구주와 주님 되어 주시기에 그 점에 깨어있다 보니, 오늘 주어진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모신 맑고 정결한 은혜 속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영혼이기에 주님과 나 사이의 끊임없는 사랑은 참 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내가 함께 자고, 함께 깰만한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시기에 그분께 부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깨어서 나의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며 그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일 때, 우리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은 우리 생활 속에 임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 수요일 오후 7시, 월-금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하나님 보시기에

하재혁 집사

어떠한 시련에도
주님 높으신 사랑은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기에

나의 모가 난 모습을
정으로 다듬어 주시는 것은

고난이 아니고
믿음의 실상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요

삶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 분함을
하늘에 원망하며
험난하고 좁은 길로 인도하심을
불평도 했지만

연단과 은혜를 체험시켜
하나님 형상을 닮게 하시려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다.

살면서 사랑하는 주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나와 주님의 관계를
질투하는 사탄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방패를 했기에

인생의 폭풍 속 구비구비
주님을 향한 길목에 사탄의 시기함이

인내와 시련을 알게 했다.

이제는 이해하지 못할
험난한 고난이 오더라도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믿음을 가슴에 담고서

감사와 소망을
내 심장의 진실한 믿음으로

사랑과 감사를
내 입술 위에 올려 놓는다.

주님 보시기에 좋으시라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PALOUSE KOREAN CHURCH



2017년 8월 20일(34주) 31권-34호

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te 115
Pullman, WA 99163 Phone 978-807-4092

Website: pullmanpkc.org